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 민·관 협치로 추진

상인·문화예술인·주민 등 24명 '주민협의체' 발대식 2021년까지 200억 투입 골목상권·문화거점 만들기

근대역사문화마을인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에 문화거점 시설을 만들고, 골목상권 활력 증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민·관 협치모델'로 본격 추진된다. 25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림동주민센터 3층 커뮤니티센

터에서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이 열렸다. 발대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양림동 주민,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관계자 등 3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주민협의체는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양림동 일원에서 활동 중인 상인 및 문화예술가, 주민 등 24명이 협의체 멤버로 활동한다. 남구는 이번에 출범한 주민협의체와 함께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큰 틀은 ▲골목상권 살리기 ▲살고 싶은 양림마을 만

들기 ▲문화거점시설 만들기 등 3개 분야로 짜여졌다. 우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픈 스튜디오와 작가 거주공간 등으로 채워지는 버들숲양림 청년작작소가 조성되고, 양림동 일원 길거리를 5개 구간으로 나눠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또 신규 창업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건축주와 창업자간 상생협약 체결 시 상가 리모델링비 10% 지원과 토요장터 및 지역 축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리마켓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살고 싶은 양림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는 주민 공동작업장과 마을박물관 등을 담은 버들숲 양림 주민 어울림센터가 구축되고, 한옥 20채와 노후 일반주택 100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며, 소공원 및 시민예술터밭도 구축될 예정이다. 문화거점시설과 관련하여 양림문화교류관과 김현승 문학공원이 조성되고, 정율성 생가 리모델링 작업도 진행된다. 동시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과 와이파이,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큐레이터가 도입되며 거리책방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함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라며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마찰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광주 팸투어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시내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내용으로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 가을이 아름다운 맛과 멋의 광주'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팸투어는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양동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춘발산마을 등 광주

시내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파워블로거들은 블로그에 광주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제작된 우수 콘텐츠 중 3개 작품을 선정해 제작비를 차등 지급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분임연구 경연대회 토목팀 최우수분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분사 상황실에서 우수시책 발굴과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분임연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3월 39개의 자체 연구분임 모임을 결성해 수의 창출, 원가 절감, 기술개발 등 각 분야별 연구·학습을 실시했으며, 이 중 우수한 결과물 10개가 이번 경연대회 본선에 올랐다.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분임에는 토목팀 궤도지킴이 분임 '교량구간 자갈도상 안정화 방안연구'가, 우수분임에는 영입팀 '유비무환' 분임 'SNS 기반의 역 이력상황별 사전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외 2개 분임이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최초로 연구분임을 결성, 눈길을 모았다. 이들은 2교대 업무직으로, 근무하는 고단한 일과 속에서 휴일도 반납한 채 연구활동을 펼친 결과 2위라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김성호 공사 사장은 "이번 분임 연구 성과를 실제 업무현장에 적용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열차 안전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19 UEA 정상회의 개최도시 '인도네시아 팔람방시장단'을 접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환경·에너지 협력

내년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팔람방 시장 등 20명 광주 방문

광주시 정중재 행정부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람방 시장 등 방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협력분야를 논의했다. 남수마트라주 방문단은 내년에 열리는 2019 UEA(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앞두고 UEA 의장도시인 광주시를 둘러보

기 위해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람방(Palembang) 시장을 비롯해 반유아신(Banyuasin) 군수, 남수마트라주 기후변화특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는 "2019 UEA 남수마트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환경, 에너지산업 등 도시 간 협력분야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방문단은 광주의 환경기초시설, 아시

아문화전당, 금호타이어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UEA(도시환경협약)'는 기후환경에 관심이 많은 도시들이 모인 국제연합체로, 현재 52개국 15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지난 2011년 광주에서 'UEA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됐으며, 2013년 샌안토니오시, 2015년 필리핀 일로일로, 2017년 말레이시아 멜라카 등에서 차례로 열렸다. 차기 회의는 2019년 10월 팔람방 시에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대형 건설현장 13곳 4분기 실태점검

광주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업 법정사항 이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4분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6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

회 광주시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민·관 건설현장 1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반은 체불임금,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홍보와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금 지급보증 발급, 지역 주민 고용, 지역 장비·생산지재 구매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운영 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홍보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의회, 건설협회, 공기업, 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광주시가 5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13층 도시디자인자문관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전세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

됐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견인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야간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탈 밤샘주차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기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부근 정차 금지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북구 내년도 예산 6600억 편성...14% 증가

광주시 북구가 민생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강화,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북구는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646억원 규모 2019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5787억원) 대비 860억원(14.8%) 증가한 규모다. 제출된 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6579억원, 특별회계 67억원으로, 북구 사상 최초로 6000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 예산안은 민생경제 116건 193억원, 동행복지 365건 4558억원, 생활문화 138건 146억원, 도시재생 124건 398억원, 혁신행정 115건 16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

업·소상공인 지원 등 9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18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원,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1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예산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 강화 22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3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 9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억원 등에 집중한다. 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17억원,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78억원 등 도시재생 분야에 398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한편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5일부터 광주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